

제목:

최근 위그루족 상황과 이슬람선교의 관계: 상황화를 위한 문화적 주제에 관한 연구
Current Trends in Uyghur in China and Its Relationship to Mission in Islamic
World: Special Reference to Cultural Theme Study for Contextualization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yghur Muslim missions, in which observational and deductive methods are limited to phenomenological analysis in their mission strategy, by investigating through contextual attempts by understanding ethnic-cultural themes.

For the contextual attempt, this article chooses to locate the target ethnic-cultural theme to implement Paul Hibert's critical contextualization theory along with Steve Beavan's six Contextual Models. In addition, as for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ethnic identit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ethnic group and ethnicity,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ethnology and ethnic studies. These concepts and definitions illuminate that it is more appropriate to perceive the Uyghur people through ethnicity rather than ethnic groups.

To discover the cultural themes of the Uyghur trib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search of their historical trends, anthropological data, and the changes in modern urban Uyghur's social networks. In terms of historical context, though the Chinese history records the Uyghur from the time of since B.C., the study did not cover pure history but mainly explored it to find cultural themes. Therefore, the paper mostly focuses on historical events of the mid-18th century that significantly changed and formed modern Uyghur cultural themes and spiritual beliefs. In 1757, Uyghur country, or Jungaria, which ruled the northern part of the present-day Xinjiang province, was conquered by the expedition of the Qing dynasty. Two years later in 1759, the other Uyghur cites, which were scattered throughout the southern parts of present-day Xinjiang, which governed Islamic Naqshbandi, their spiritual stronghold and governing system, were both submitted to the Qing army. This research also thoroughly described the mid-19th-century Hui-Turkish allied rebellion against Qing, which tremendously impacts Uyghur ethnic sentiments even today. This article especially summarizes the significance of Yaqub Bek's rallying of Xinjiang's entire Uyghur Turk population, his formation of a unified nation, and the contribution to the emotional and spiritual sentiments of the modern Uyghur.

Because this paper focuses on modern Uyghur Muslim missions, I mainly examined how the social networks of modern Chinese urban Muslims are changing. I also introduced and characterized dual cultural sets and the composition of their cultural dynamics. Furthermore, using the communication theory, I analyzed how informational channels influence the worldviews and behavior patterns of modern young Chinese urban Muslims.

In the conclusion, this article stresses the need for Korean missionaries to go beyond the list of phenomenological data and make a contextual approach by understanding cultural themes when interacting with Uyghurs who are Chinese ethnic minorities and Muslims. For such a contextual approach, with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local leaders' contextual efforts, considering the current mission situation, this articl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missionaries' efforts to understand cultural themes.

As a conclusion as well as a ministry application, this article underscores the need for research that explores the social stratum that can create strategically entrances and bases that diffuse the Good News, which would provide missionaries access to the entire Uyghur.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revealing the cultural themes of the modern Uyghur. I mainly utilized historical, cultural anthropological, social anthropological, and social network theories for this research. Scholars who provided the research's fundamental theories include Steve Beavans, Paul Hiebert, Ronald Reminick, Nathan Glazer, Daniel P. Moynihan, Claude S. Fischer, Edwin Eames, and Judith, Granich Goode, and various other Uyghur and Central Asian modernist historians.

Keywords:

위그루, 무슬림 선교, 문화, 상황화 (Uyghur, Muslim Evangelism, Culture, Contextualization)

I. 도입:

근래에 들어 중국의 신강성과 그곳의 대표적인 소수민족 위그루족이 중국 사회에서 처한 정치적, 민족적, 사회적 상황은 상당히 많은 매체에 오르내리는 주제가 되었다. 적어도 중국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을 어떤식으로 대하더라 하는 소식은 국제문제나 중국 상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 낯설지는 않은 정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이래 중국의 꿈(中國夢)을 비전으로 외치는 5세대 정치인 시진핑(習近平主席)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대외 대내에 대한 정책에 상당한 자신감이 물어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제질서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 일대일로(一代一路)정책을 펼치고 국내에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활을 향상하고 현대화 하겠다는 정책을 확대해 나갔다. 한편 2018년 2월에는 새로운 종교법을 시행하기 시작 하였고 기독교계를 향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해왔던 종교의 중국화, 토착화, 투명화 나아가서는 애국화를 적용하고 있다. 결과 외국인교사들에 대한 배척과 미등록 교회에 대한 등록요구는 훨씬 강화되어 선교계 내외에 많은 파장을 만들고 있다.

신강 지역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강화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워낙에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또 그 자리가 갖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일대일로(一代一路)정책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강지역이 갖는 민감함은 그 어느 지역에 비할바가 못된다. 신강은 중국 영토의 1/6을 차지하는 광활한 영토와 10여개의 소수민족이 살아오고 비옥한 농토와 엄청난 지하자원을 소유한 곳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를 하찮게 간주하게 만드는 점은 최근 신강이 이슬람과 외부의 테러리즘간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기가 좋은 곳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교와 이슬람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위그루인의 선교는 시공간적의 의미와 정치경제적 의미, 민족과 종교적 의미,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모두 함유한 종합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최근에 회자되는 중국 이슬람 선교에 관한 기독교 계통의 선교 보고서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감사함과 아쉬운 마음을 동시에 갖는다. 감사한 이유로는 한국을 비롯한 전체 선교계가 이제 상당히 깊은 곳까지 관심을 갖고 적지 않은 인원들이 어렵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슬람 사역에 인애와 용기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기독교 역사도 짧은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도의 집중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을 해 왔는지를 생각 하면 감탄이 그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더군다나 큰소리로 찬양 한번 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청춘과 꿈을 바쳐가며 가족과 함께 사역을 해온 위그루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반면 신강과 위그루족 선교를 위한 연구에는 몇가지 아쉬움도 남는다. 오랜동안 중국 이슬람 사역을 진행하면서 습득한 교훈과 지식, 그리고 연구한 결과가 다음 둘 중 하나에서 주로 머물러 있다는 현실때문이다. 하나는 연구의 전개가 선교의 당위성을 반복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기본적인 논지 차원에 머무는 것이다. 즉 어떤 입체적인 상황 설명이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그러므로 선교를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으로 갑자기 결론을 내리는 연구가 적지 않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중국 이슬람 선교에 대한 연구와 습득한 자료들이 주로 대상들이 보여주는 현상을 나열하는 현상학적 연구에 머문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주로 국제단체나 자료가 정리된 웹사이트에서 나온 자료들을 다시 재 정리하거나, 뉴스나 시사 자료등 올라오는 자료들을 인용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식의 정리에서 멈추는 연구가 여기에 해당을 한다. 아니면 선교사들의 관찰 결과를 모으기는 하지만 그 현상을 해석하거나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렌즈가 부족하다보니 그냥 관찰을 그대로 나열하는 보고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보고서들은 사건과 관찰현상은 나열은 하지만 그것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해석과 또 그 현상들이 반복하면서 만들어내는 의미를 찾아 정리해 내는데까지는 다다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선교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데이톤과 프레이저(E. R. Daton and D. A. Frazer)가 정리한 기독교 역사와 성경속에 등장한 다양한 전략 유형중에는 과정 전략(process strategy)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과정전략이라 무 전략과 흡사한 개념인데 여기서 말 하는 것은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회의적이고, 또 주님안에서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믿는 관점이다.¹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무지속에서도 순종하려는 순수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가만해 보면 절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될 중요한 전략이요 우리 기독교의 유산이다. 많은 선진들이 그저 믿음 하나로 앞으로 달려갔기에 오늘날의 기적과 같은 성과가 있었고 또 이러한 간증들은 한국 기독교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낸 동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전략은 현장의 사실(fact)가 기본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소가드(Viggo Sogaard)는 전략이란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만드는데 주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적 방법이라 소개를 하였다.² 그렇기 때문에 선교전략에 사회학적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 하겠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이란 현장의 관찰, 패턴, 분석을 통하여 일을 예측을 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과 자료수집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현장에 맞는 전략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관찰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수많은 현상중 반복되는 패턴들을 찾아낼 수 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패턴이란 다른 현상보다도 훨씬더 다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은 관찰자로 하여금 경험적 일반화(generalization)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³ 이 경험적 일반화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역에 예측을 하도록 하고 그에 기반 하여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수 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그루 인을 향한 선교전략수립에 사실(fact)가 기본이 되는 현장의 요소는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저자는 본 소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답을 하기 원한다. 현재 위그루 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 그런 현상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정치적인 상황에서만이 아닌 문화와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위그루인의 문화적 주제는 무엇인가? 현대 도시의 위그루인들은 어떻게 변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망은 어떤식으로 형성이 되어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적절한 자료를 수집한후 저자는 전체적인 결론으로 상황화된 위그루인 선교를 위해 역사와 문화적배경, 현대 사회적 상황이 고려된 접근을 위해 갖고 있어야 할 몇가지 선교적 명제를 제안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었다. 먼저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알아야 할 이론들이다. 이는 위그루라는 민족을 생각할때 너무 과거와 근원에 치우치거나 반대로 너무 현대적인 상황에서의 위그루인만을 생각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이다. 두번째로 다루려는 이론은 상황화 이론이다. 이는 선교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술(description)이나 현상(phenomenology)을 다루기 보다 더 밑 판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상황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째는 최근 200여년에 걸친 위그루의 역사중에 근대 위그루인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었던 역사적 틀과 서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 역사적 사건의 정리와 이해는 오늘날 위그루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과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는 기초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본 논문은 위그루 개인들이 현대 생활을 살아가면서 인식과 가치속에 작동하는 문화적 체계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와 이론들을 종합하여 선교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기본적이고 오래 가져 가야 할 자세와 명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II. 민족 정체성이해를 위한 이론들

한 민족을 향한 선교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단순한 현상학적 이해나 선교적 당위성을 반복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현상이 갖는 의미과 그 밑에 존재하는 역학관계를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문화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밑 바탕이

¹ Dayton E. R., Fraiser D. A.,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zation, 광 선회, 이요한웁김, 세계선교의 이론과 전략,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80), 47.

² Viggo B. Sogaard, *Media in Church and Mission: Communicating the Gospel*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3), 56.

³ 배규한, 이태림, 이기재, 조사방법론과 사회통계 (서울: 도서출판 한나래, 1991), 23-24.

되어야 한다. 이 문화적 정체성의 이해야 말로 선교전략이라는 집을 세우는데 사용이될 중요한 벽돌을 마련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위그루인들의 문화적 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표기(cultural symbols)을 나열하거나 행사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민족을 민족학과 인류학적 렌즈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인류학적 자료들은 위그루족만을 위한 상황화된 메시지를 설계하는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인류학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허락하신 역사와 정서, 수천년동안 지켜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였던 스토리들 속에 이 민족만이 이해할 수 있고 이 민족만이 설명할 수 있는 복음적 파편들을 더듬어 찾아 내는데 일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여러 학문체계에서 분석한 것을 종합했을 때에야 비로써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족학이나 인류학적 접근만으로는 정체성의 모든 부분을 알아내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외의 신학적 정체성, 생물학적 정체성, 정치 경제적 정체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체성을 모두 합하였을 때에야 비로써 좀더 온전한 정체성의 윤곽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문이 선교전략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는 이유로 여기서는 위그루족의 정체성을 민족학과 인류학적 측면에 국한을 하도록 하겠다.

민족을 사회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들로 크게 민족학(ethnology)과 민족 연구학(ethnic study)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민족학⁴은 인류학(anthropology) 혹은 사회학(sociology)의 한 부류로서 인류와 인종의 자연적 혹은 인위적 분류와 그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민족학자들은 각 민족들의 역사, 정서, 산업, 예술, 언어, 사회, 지식, 민간전승(lore), 그리고 종교들을 연구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다른 민족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들의 기원과 문화적 기초(origin and the source of their culture)를 연구한다. 즉 민족학은 민족의 기원, 삶의 방식, 언어, 가족제도, 종교와 세계관 등 민족의 표면적 특징아래에 존재하는 그들의 저변을 이해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⁵

민족학과 함께 민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는 민족연구학이 있다. 민족 연구학이란 말 그대로 민족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적 영역이다. 이 민족연구학은 앞에서 보여준 민족학에 비하여 보다 그 안의 역동성에 관심이 있다. 민족연구학은 단순히 그 민족이 누구인가 또는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등을 알아내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 하고 변화 해 가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학문이다. 민족 연구학의 연구 분야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민족 그룹 내부와 그 안의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연구학에서는 그들의 문화와 기관, 정체성과 경험,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등을 연구한다. 둘째 분야는 그 민족의 타민족과의 관계와 역학구도에 관한 분야이다. 여기에 해당 하는 분야로 민족의 신분 계층, 민족간에 사용하는 사회와 경제 그리고 공간에 관한 연구, 정치적 편견, 그리고 민족간 차별 문제등을 말 한다.

한 민족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역학 관계와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학문적 접근만으로는 그 해석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 양(Philip Q. Yang)이 말 했듯이 민족학은 “다중 학계를 통합한 학문이고 민족 그룹들과 그들의 민족간 교류에 관한 비교학적 학문”이라 할 수 있다.⁶ 이러한 민족학은 선교지의 대상 민족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원과 깊은 정서, 그리고 민족적 사회구조를 이해한다는 점에 있어 선교학과 선교전략에 귀중한 재료를 제공하는 학문이 될수 있다. 특히 미전도 종족 등 민족적 전통과 문화가 주변 문화권과 거리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 민족지를 통해 얻은 민족학적 자료는 선교에 귀중한 의미를 제공한다.

프레드릭 바르트(Frederik Barth)는 민족이 서로를 자신의 같은 그룹으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는 같은 그룹의 멤버들이 스스로와 다른 집단이 인정

⁴ Ethnology in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Ethnology>

⁵ 민족학은 그 민족이 어떤 식으로 기원을 했는지 연구하고 주변 환경이 그 민족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연구한다. 민족학은 그 민족의 삶의 방식, 생산수단과 그 과정들이 민족 고유의 방식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타 민족과의 교류에서 얻어진 것인지도 연구한다. 가족제도나 가족의 개념, 그 민족의 삶의 방식,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 그리고 세계관등도 민족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The Encyclopedia Americana, ethnology <http://en.wikipedia.org/wiki/Ethnology>.

⁶ Philip Q. Yang, *Ethnic Studies: Issues and Approach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3-7.

할 수 있는 구별되는 이질적 요소를 같이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민족 안에 서로가 하나임을 반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민족 구성원들이 문화의 핵심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문화적 표현안에 통일성과 일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통적으로 일정 범위안에 들어 오는 사람들이면서 지속해서 그 경계를 지켜내었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했다.⁷ 이러한 민족의 개념은 막스 베버(Max Weber)나 서머혼(R. A. Schermerhorn)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도 유사한 개념들이 내려져 왔었다.⁸

중국과 같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도시는 다양한 민족들의 집합소와 같은 곳이다. 물론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한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동서남북의 변방에 위치한 도시에서는 소수민족의 비율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는 현대의 중국 도시에서는 민족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과연 도시안에서 민족이란 무엇을 말 하는 것일까? 또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 부르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급변하는 현대인의 민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민족을 규명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는 혈통을 중심으로 민족을 정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혈통과 역사 문화를 모두 정의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혈통과 역사는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나라로 나뉘어져 살고 있거나, 또는 너무 먼 거리에서 서로 교류도 없고 사회문화적으로 이질감이 많아진다. 그래도 이들을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을까? 민족학계안에서는 민족성(ethnicity)과 민족 그룹(ethnic group)을 분류해서 그 개념을 다룬다. 민족 그룹이란 단군의 자손인 한민족 또는 푸른 늑대의 자손인 몽골인, 알에서 태어난 신라의 김씨 등 민족의 기원(origin) 을 중심으로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묶음을 말 한다. 즉 이들은 같은 조상, 같은 역사를 갖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언어와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민족그룹은 같은 역사와 문화를 소유한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묶는 개념이다. 같은 조상으로 부터 시작했다는 기원에 대한 동질 의식과 함께 지난 역사속에서 조상들이 체험했던 경험들은 민족 구성원들을 서로 하나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어 준다. 또한 그 역사와 자연환경 가운데 차츰 형성된 문화와 세계관은 같은 민족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소통하고 동질감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 그 민족이 섬기는 신앙체계역시 이들의 세계관과 문화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커다란 요소이다. 이러한 기원,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등은 특히 소수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을 지키고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인 명제이자 서로를 하나로 묶어내는 끈이 된다. 특히 위그루족과 같이 자신들보다 더 큰 세력앞에 정체성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그룹들에게 이러한 명제들은 생존과도 같은 요소가 된다. 로날드 라미닉(Ronald Reminick)은 같은 민족들 안에는 자신들의 기원지, 종교, 친속감, 가계등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어낼 기원과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⁹ 이처럼 한 조상으로 부터 시작된 민족적 기원부터 오늘날 까지 겪어온 수많은 시련과 영광스런 역사들, 그리고 그러한 과정속에 만들어진 가치관, 감정, 이념, 문화적 표현들이 모두 합하여서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되어 있다.¹⁰

이와 달리 민족성(ethnicity)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많다. 시간이 가면서 민족성은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받고 또 현실적으로 민족의 혈통은 섞여 가기 때문이다. 민족성은 현 세대들의 삶과 가치 그리고 주변의 조류를 형성하는 당대의 사회와 문화적 환경이 민족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보는 개념이다. 정체성이란 수천년동안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것이 정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오래전의 문화와 역사만을 찾아보는 것은 넌센스라는 논리이다. 그 민족이 최근에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체험하는 환경들은 그 민족의 가치관과 기호, 경제능력, 관련하는 네트워크, 미디어와 정보력, 그리고 가족관계나

⁷ Fredrik Barth and Universitetet i Bergen,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Scandinavian University Books (Bergen, London: Universitetsforlaget; Allen & Unwin, 1969), 10-11.

⁸ Max Weber, "The Ethnicity Group," in *Theories of Society: Foundations of Modern Sociological Theory*, ed. Talcott Parsons et al., vol. 1 (Glencoe, IL: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1), 306; R. A. Schermerhorn, *Comparative Ethnic Relations; a Framework for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Random House, 1970), 12.

⁹ Ronald A. Reminick, *Theory of Ethnicity: An Anthropologist's Perspective*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13.

¹⁰ Lola Romanucci-Ross and George A. De Vos, *Ethnic Identity: Creation, Conflict, and Accommodation*, 3rd ed.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1995), 18-26.

마을 사람과의 관계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민족성에서는 전통과 혈통 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대세계와 사회 제도속에서 새로운 조류, 정부정책, 타민족과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세계화속에서 민족들은 새로운 얼굴을 갖는 다는 점을 강조한다.¹¹ 그렇기 때문에 민족 그룹에서 말하는 민족에 대한 개념이 전통, 감정, 그리고 혈통등이 중심이 되어 대체적으로 고정적이었다면 민족성에서는 유동적이고 과정적이라 하겠다. 현대에 와서는 잦은 이동과 복잡한 사회문화적 흐름으로 인하여 민족의 구성원과 개념, 그리고 상대방과 자신을 향한 인식들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지난 100여년 동안 겪은 격동의 역사는 그들의 모습과 문화를 그 이전의 중국인들에 비하여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중국인들을 전통적인 그들의 문화와 기원으로만 설명 할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근래 약200여년 동안 엄청난 격동을 겪었던 위그루 족은 그들은 전통적인 정체성만으로 그들의 최근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게 만든다. 더군다나 현대의 위그루 족은 최근 수십년 동안 문명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정부 주도의 문화적 동화과정(cultural assimilation process)을 겪는 중이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미디어를 통해 중화중심(中华中心) 적인 사상을 확산하는 가운데 이들 위그루인들은 힘겹게 자신의 오랜 정체성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도 갖지만 어느새 조상들과 다른 삶을 어느정도 익숙하고 즐기는 중에 있다 하겠다.

III. 상황화 작업과 위그루 문화적 주제간의 연결성

위그루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께서 구주되심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성경이 원래 소개하고자 하는 복음을 가장 정확히 소개 할 수 가 있을까? 성경에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었고, 장사되었고, 사흘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고전 15:3-5).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위그루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소개가 되어야 원래 복음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상황화란 보통 복음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한 작업이다.¹² 그렇기 때문에 상황화가 가능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더 정확히 소통해야 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소통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상황화를 토착화와 혼돈을 시킬 수 가 있다. 좀더 그들의 입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문화적인 고려를 최대한 하려는 토착화 이론은 그 목적이 정확한 복음 전달에 있기 때문이다.¹³ 상황화는 이 토착화에서 더 나아가 상황의 변혁과 급진적 변혁을 하는데까지 나가는 이론이기 때문에 토착화와는 동일하게 생각 할 수 는 없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그루 족의 선교 처럼 오랜 시간동안 선교의 기초를 형성해야 하는 어려운 대상은 선교에 있어서 이러한 토착화, 상황화, 커뮤니케이션론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생각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상황화는 토착화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비하여 선교의 상당히 뒷부분, 즉 완성단계까지 가면서 나와야 하는 과정인 만큼 아직 현지의 문화 파악을 해야하는 단계에서는 완벽한 상황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라 하겠다.

상황화 작업의 목표안에는 성경 메시지의 이해와 복음의 이해가 그 중심을 차지한다. 복음의 전달은 항상 상황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을 무시하고 전달할경우 전하는 사람의 주관적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 쉽게 메시지가 왜곡이 되기 때문이다.¹⁵ 이 오해와 왜곡에는 전달당시의 환경적 상황은 물론이고 전하는자와 듣는자의 개인적인 성향, 지적능력, 정서와 건강상태도 영향을

¹¹ Nathan Glazer, Daniel P. Moynihan, and Corinne Saposch Schelling, *Ethnicity: Theory and Experien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5.

¹² Dean S. Gilliland, *The World Among Us: Contextualizing Theology for Mission Today* (Dallas, TX: Word Publishing, 1989), 3; 12-13.

¹³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8가지* (서울: CLC, 2011), 48-51.

¹⁴ *Ibid.*, 57-60.

¹⁵ David J. Hesselgrave,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An Introduction to Missionary Communication*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78).

미친다.¹⁶ 이뿐아니라 전달자와 수용자간에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거나 수용자 집단이 소유한 역사와 문화도 메시지의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¹⁷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듣는 자의 이해를 살피면서 전달자의 메시지가 의도했던대로 전달이 되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전달을 한다기 보다 소통을 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¹⁸ 이러한 노력은 상황화 작업에 가장 기초적인 자세이며 선교적인 노력이라 할 수가 있다.¹⁹ 그러므로 상황화 작업에서 복음의 소통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화 작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소통이 되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나 문화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수신자 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적 자세와 성육신 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²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역사속에 만들어진 정서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위그루인들에게 복음이 복음 되도록 하는 모판이고 상황화로 나아가는 첫 작업이 된다.

상황화 라는 신학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화 작업이 필요한데 스티브 베반스(Steve Beavans)는 상황화 신학과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섯가지 모델을 제안하였다.²¹ 베반스의 다섯가지 모델은 상황적 요소와 메시지의 텍스트(text) 즉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느 부위에 얼마나 많은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가장 상황적 요소에 중점을 둔 모델로 인류학적 모델(anthropological model)이 있는데 이는 상황에서 관찰된 현상이 기준이 되어 그에 맞는 성경적 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상황을 우선시하는 모델이다. 그와 반대 되는 것으로 번역모델(translation model)이 있는데 이 번역 모델은 상황적 요소를 많이 고려하지 않고 바로 원문이나 문화를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번역 모델은 원문에 충실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대로 원문이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가 번역 내용에 따라 들어오게 되고 또 상황화되어야 할 문화에 얼마나 어필이 될지에는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들 둘 사이에는 실행모델(praxis mode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현장의 실무자가 신앙적 결단을 갖고 변화를 유도할기 위해 상황과 원칙 사이에 어떠한 균형을 맞추는데 활용이 되는 모델이다. 이 실행 모델과 인류학적 모델 사이에는 문화적 변혁(transcultural model)이 있다. 이 모델은 콘텐츠를 어떤식으로 바꾸느냐에 초점이 가지 않고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주제를 기준으로 내용을 새로이 구성하는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혼합모델(synthetic model)이 있는데, 이는 그동안 나온 네가지 모델을 모두 사용하여 적절히 구성하는 모델을 말한다.

베반스의 상황화 이론이 일반적이고 범 세계적인 선교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된 것이라면 폴 히버트(Paul Hiebert)가 제안한 비판적 상황화(Critical contextualization)이론은 좀더 선교사가 현지를 상황화적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 히버트는 모든 선교사가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갈때 그들은 결코 종교적 문화적 진공상태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곳은 수천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잘 발달된 문화권이기 때문이다.²² 이러한 전통문화속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물질문화, 삶의 예식과 치유와 번성을 위한 의식 문화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갈때에 그들은 기존의 문화에 대하여 적어도 셋 중의 하나의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다.²³ 첫째는 상황화의 거부로서 옛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자세이다. 선교사의 이러한 자세는 현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가 쉬워진다. 혹 받아들였다 할 지라도 선교사의 앞에서 또는 교회에서의 생활과 실제의 삶이 나뉘는 이중적인 삶을 살 기가 쉬운 기독교로 되어간다. 또 어떤 경우는 선교사들이 옛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무 비판적 상황화 자세 역시 현지인들이

¹⁶ Donald K. Smith, *Creating Understanding : A Handbook for Christian Communication across Cultural Landscape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2), 50-64.

¹⁷ Charles H. Kraft, "The Incarnatio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Theory," 1973, 212.

¹⁸ James F. Engel, *Contemporary Christian Communication* (Nashville, Newyork: ThomanNelson Publishers, 1979), 47.

¹⁹ Gilliland, *The World Among Us*, 12, 13.

²⁰ Ibid., 3.

²¹ Stephen B Beavans,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 (Marknoll, New York: Orbis Book, 2000), 27.

²² Paul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 for Missionaries*,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홍호 역,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죠이 선교회 출판부, 1996), 243.

²³ Ibid., 243-60.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그 복음의 내용이 혼합주의로 흐르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현지의 문화속에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의미와 비 성경적 전통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지인들은 “새롭게 받아들인 신앙의 기저속에 혼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고 그로인해 다양한 신 이교적(neopaganism) 요소를 만들어 내게 된다.”²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히버트는 선교사들이 비판적 상황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했다. 비판적 상황화란 성경이라는 기준을 갖고 현지의 문화적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문화적이면서도 새로운 성경적 대안을 제시 하려는 시도이다.²⁵ 비판적 상황화 이론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가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옛 문화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분석 (phenomenological analysis), 옛 관습에 대하여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 연구(ontological reflection), 성경적 관점으로 옛 관습에 대한 평가(critical evaluation), 그리고 옛 관습에 대한 새로운 기독교적 대안 제시(missiological transformation).²⁶ 이 비판적 상황화 모델은 단일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합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오히려 한쪽 문화권의 사람이 다른 문화권의 메시지와의 의식을 이해하려는 초문화(metacultural) 와 초 신학적(metatheological) 틀을 만드는 작업이다.²⁷

비판적 상황화 접근은 기독교 메시지가 위그루 인들에게 그들의 문화안으로 깊숙히 스며 들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 비판적 상황화 방법은 인해 선교사의 문화와 보내는 곳에 존재하는 혼합주의가 복음을 서양적인 것 또는 한국 적인 것으로 만들어 무슬림들에게 전달되는 폐해를 극복 하고 오히려 순수한 복음이 현지인의 것으로 전달하는 데 용이 하기 때문이다.²⁸ 이러한 비판적 상황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와 상징들을 객관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현지인들의 삶속에서 형성된 신념 체계과 표현, 문화적 상징과 행위등이 만들어 내는 의미를 찾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그 민족이 만들어 내는 문화적 주제(cultural theme)를 알아 낼 수 가 있다. 그 다음으로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적 주제에 대하여 성경이 말 하는 관점과 자세를 찾아보아야 한다. 즉 그 민족이 그리도 간절히 표현하고자 하는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성, 애환과 걱정, 한스러움과 필요로 하는 도움앞에 성경은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경적 받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단어분석, 그리고 성경시대의 배경이해등은 필수적인 작업이라 하겠다.

히버트가 소개한 비판적 상황화는 위그루족이 가슴 깊이 갖고 있는 민족적 정서와 주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신학화 방법이라 하겠다. 한국어에 ‘은근과 끈기,’ ‘한을 풀어주소서,’ ‘동방의 아침의 나라’ 라는 말속에 남다른 의미가 있듯이 그 민족이 오랜동안 숙원이고, 이루고 싶어 노력해 왔고, 걱정하고, 감정적으로 복받쳐 온 어떤 부위에 대하여 그들이 이루어왔던 노력과 옛 문화적 행위보다 더 분명하고 영원한 답을 복음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은 너무나도 크고 깊고 그 넓이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위그루인들이 자신들의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고 추구하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사와 정서 속에서 다양한 상징과 표기(symbol and sign), 행사와 인간관계등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표현 보다 더 근본적인 대답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IV. 야콥 백과 위그루 최후의 연합국가

²⁴ Hiebert G. Paul,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Communication of the Gospel,”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ed.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lif.: William Carey Library, 1999), 381–82.

²⁵ Paul G Hiebert, “Critical Contextualiz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987, 111.

²⁶ Paul G. Hiebert, R. Daniel Shaw, and Tite Tiénou, *Understanding Folk Religion : A Christian Response to Popular Beliefs and Practices* (Grand Rapids, Mich.: Baker Books, 1999), 22.

²⁷ Hiebert, “Critical Contextualiz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11.

²⁸ Clayton Parnell Cloer, “Samuel Zwemer : A Model of Muslim Contextualization” (Ph. D.,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0), 150.

신장 자치구는 중국에 속하기 이전부터 위구르족이 살아왔던 터전이다. 중국의 역사에도 오래 전부터 이곳 신장 지역이 등장한다. BC 138년 한무제(漢武帝)는 그의 신하 장건(張騫, ?-BC114)이 서역을 탐험하게 하였고 장건의 보고에 의해 한나라는 신장에 군사를 파견하였다. 결과 BC 60년 한 왕조는 서역도호부(西域都护府)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로는 한나라는 자신의 지도안에 신장지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실제 신장성을 행정 구역으로 설립 한 것은 1884년 청나라때의 일이며, 1955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장성을 들어가 통치하면서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영토안에 들어와 있다.²⁹

‘위그루’라는 단어는 위그루족이 스스로를 일컫는 명칭으로 4세기부터 한문 사적에 등장한다. 위그루라는 말에는 ‘단결,’ ‘협조,’ ‘연합’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위그루 인들은 천산산맥 과 북쪽의 초원지대에서는 주로 이동성 목축생활을 하고 물이 풍족한 남쪽에서는 농경문화속에서 살아왔다. 이들은 주로 투르크 계열의 9개 부족들이 연합하여 744년 몽골 고원 중앙지역에 위그루 제국을 세웠으나 840년 키르기즈에 의해 멸망한다. 그후 주류가 천산산맥을 따라 이주하여 투르판 근처에 고창왕국(9-13세기)을 세우면서 유목민족들이 정주하게 된다. 고창의 서쪽에는 카라한 왕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840-1211년) 이들은 지금의 신장의 남부, 즉 남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인종과 문화적으로는 투르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후 카라한 조는 급기야 960년대에는 국가 전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된다.³⁰

중국의 신장과 몽골 그리고 티벳 지역의 민족들과 충돌했던 역사는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중원세력이 본격적으로 신장지역에 세력을 확장시키게 된것은 청나라에 와서 더 확실하게 되었다. 청나라의 신장 지배는 그 전의 漢, 唐, 明나라가 했던 신장의 지배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 전의 왕조들은 새로운 지역에 일부 지도체계와 군대를 두고 무역과 연락을 하는 정도였지만, 청조에 와서는 이들의 영토를 항구적으로 자신의 지배아래에 둘 수가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중국화(Sinization)를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1757년 청 정부는 지금의 북부 신장(北疆) 이라 할 수 있는 준가리아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준가리아는 가히 당시에 남아있던 최후의 유목국가였다. 당시 준가리아는 청과의 전쟁, 그리고 천연두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90%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엄청난 참변을 겪어야 했다.³¹ 이런 준가리아의 멸망사건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 지역에서 남하하던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를 중국이 선점하게 되었다는 점과 수천년동안 갈등하던 중국이라는 정주국가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과의 세력 다툼에서 중국이 최종적인 승리를 점찍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신장의 남쪽 (지금의 남강(南疆))은 전체적으로 낙시벤디(Naqshbandi)라는 이름의 이슬람 수피 교단의 영향이 강한 곳이었다. 이들은 교단의 장로와 그 후손들 몇이 종교는 물론 그 지역의 영주 역할을 하며 서로의 세력을 겨루었다. 여러 계열로 나뉘었던 남강(南疆)의 분파들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탓에 북강의 속령(屬領)처럼 준가리아의 세력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청군이 준가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북강을 침공 할 당시 남강의 카쉬가르 위그루가 북강에 연합하여 청의 장군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청군에게 북강의 준가리아에 이어 남강까지 침공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결국 1759년 남강 전체가 청군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청조는 새로운 자신들의 새로운 강토가 된 곳이라 하여 이 남강과 북강을 합하여 신강(新疆, XinJiang) 이라 명하게 되었다.³²

청이 신장을 지배하면서 사용한 정치 체계는 이중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먼저 청조는 신장의 토착 무슬림들을 관리 하기 위하여 이전 부터 존재했던 백(beg)이라는 토착 수령 제도를 사용하였다. 신장 곳곳에는 종교와 생활 그리고 법치를 위하여 수백명의 백을 세웠고 청 정부는 이들 백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서 통치를 했다.³³ 청 정부는 복잡한 정치와 민족,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들은 가능한 백들에게 자치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의 세금과 외교와 같은 부분들은 청 정부가 관할을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두 종류의 지도자를 섬겨야 하는 모양이 되었다는 점이다. 백성들의 눈에 백 들은 청 정부의 허수아비로 비추었기 때문에 나중 무슬림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었을때

29 新疆维吾尔自治区人民政府, 了解新疆, 新疆维吾尔自治区概况 <http://www.xinjiang.gov.cn/ljxj/zrdl/index.html>.

30 중국 신장 도시연구 동우회, 우루무치: 신 실크로드의 심장 (서울: 중국 신장 도시연구 동우회, 2008), 28-29.

31 撰魏源, 聖武記, 道光 22, vol. 上卷 (北京: 中華書局本, 1984), 156.

32 苗普生, 新疆歷史常識 (烏魯木齊: 新疆人民, 1993), 239-42.

33 G. Clauson, "Beg," in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Univ. Press, 1972), 322.

이들 토착 지도층인 백들은 대중을 선도하거나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무슬림 대중의 요구를 흡수할 여력조차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위그루인들이 근대적인 민족 정체성과 역사의식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19세기 후반 동투르크스탄에서 발생한 무슬림들의 반청봉기(反淸蜂起) 사건을 빼 놓을 수가 없다. 동투르크스탄 지역은 과거의 수많은 흉노, 돌궐, 몽골, 준가르, 투르크 같은 유목국가들이 흥망을 거듭한 곳이고 북방의 초원세력과 중국의 농경왕조, 그리고 동유럽의 세력들이 거듭하며 점령을 반복하던 곳이었다. 19세기 후반은 전 세계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혼돈스러웠던 시기이기도 했고 또 중앙아시아가 갖고 있는 동서문화교류의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이곳 동투르크스탄이 경험했던 소용돌이는 세계의 어느곳에 못지 않은 것이었다. 당시 동투르크스탄은 말 그대로 변화의 시대를 겪는 중이었고 그 안에 살아가는 민중과 권력자들이 겪던 혼란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 혼란은 1864년 먼저 동 투르크스탄 지역에서 무슬림들의 대대적인 청정부에 대한 항거로 시작이 되었다. 동 투르크스탄 지역의 큰 도시에는 모두 청 정부의 기관과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위그루인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반청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³⁴

위그루인들의 반청 봉기가 일어나기 얼마전 감숙, 섬서지방의 여러 회족 무슬림들이 먼저 반청봉기(反淸蜂起)를 일켰다. 회족들은 통간(Tungan)이라고도 불리었는데 이 단어는 투르크 계열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는 중국의 한족'이라는 호칭에서 파생이 된 단어이다. 나중 이 단어를 따라 청나라에서 회족을 동간(東干) 이라 기록하면서 일반화 되었다. 동간은 다른 말로 한회(漢回)라고도 불리어왔으므로 둘다 모두 오늘날의 회족을 의미하는 명칭이라 하겠다.³⁵ 이들 통간, 즉 회족들의 반청봉기(反淸蜂起)는 나중 위그루인들의 반청봉기(反淸蜂起)를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862년 부터 통간들 사이에서는 청 정부가 대대적으로 회족을 탄압하고 학살 할 것이라는 소문들이 돌았다. 이는 단지 근거 없는 소문이어기 보다 회족들의 눈에 비추인 청정부의 행동이 이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자연히 학살에 대한 공포분위기는 회족들 사이에 삽시간에 확산 되었다. 당시는 중국 전역이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에 몸서리를 앓고 있을때였다. 태평 천국군은 빠른 속도로 중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회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섬서성으로도 그 군대가 들어와 세력을 세웠다. 이런일로 중앙정부는 섬서성 지방정부에 지역 군인인 단련(團練, tuan lian)을 설치 하도록 독려를 하였다. 그런데 이 단련(團練)은 태평천국군을 토벌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회족이 태평천국군에 합류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로 인해 단련군은 섬서성과 감숙성의 평량(平涼)시 에서 대대적인 회족속청을 감행 하였다.³⁶ 결과 감숙과 섬서 전역의 회족들은 청 정부가 자신들을 학살 하려는 계획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감숙성, 섬서성, 영하의 회족들은 스스로 군대를 결성하였고 청의 지방 정부와 대치를 하게 되었다. 결국 북경의 중앙 정부는 이들 회족 반군을 토벌하기 위해 다시 대규모의 중앙군을 파견하여 수년간의 전쟁과 살육이 시작 되게 된다.

전통적으로 청나라는 많은 수의 회족 용병을 모병하여 군인을 보충해 왔었다. 그중 일부의 회족군인을 다른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신강지역에 파병하여 한족 군인들과 함께 위그루인들을 통제 하도록 해왔었다. 뿐만 아니라 신강의 농토지역에는 이미 많은 숫자의 통간, 즉 회족 민간들이 위그루인들과 농사, 식당, 무역을하며 살아오고 있었다.³⁷ 자연히 섬서, 감숙의 회족 학살에 관한 소문과 또 단련에 의한 공격소식은 신강성의 회족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는 신강의 회족들에게 반청 감정을 고취시키고 위기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반대로 신강성에 설치된 청 정부 역시 위기감을 감지한 회족들의 봉기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게 대처하기 시작 했고 이를 평정하기 위해 점점 과도한 탄압을 시작 하였다. 회족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투르크 계열 민족들을 합류하기 시작 해서 나중 1864년 이 회투르크 연합 세력은 급작스럽게 가히 신강에서의 '무슬림 봉기'를 촉발 시키게 되었다.

34 魏廣燾, “戡定新疆記,” in 新疆研究叢書, by 袁同禮, vol. 第十種 (臺北, 1966), 1.

35 S. R. Dyer, “Soviet Dungan Nationalism: A Few Comments on Their Origin and Language,” *Monumenta Serica* 33 (78 1977): 349-62.

36 吳萬善, 清代西北回民起義研究 (蘭州大學出版社, 1991), 137-40.

37 E. Schuyler, *Turkistan: Notes of a Journey in Russian Turkistan, Khokand, Bukhara and Kuldja*, vol. 2 (London: Sampson Low, 1877), 174, 197.

신장에서 촉발된 회투르크 연합 무슬림 봉기는 단순히 통간 학살의 소문과 그를 뒷받침 한 몇가지 사건들만에 의하여 갑자기 우발적으로 촉발 된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중국 국가의 전체적인 상황이 그 뒤에 배경으로 작용을 했다. 당시 청나라의 상황은 태평천국(1850-1864)의 난을 평정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었고 자연히 이러한 국가의 명운이 걸렸던 전국적인 내전은 국고를 바닥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드넓은 신장 전역을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청은 대량의 군대를 그 먼 신장땅에 주둔을 시켜야 했다.³⁸ 청 정부는 여러곳으로 흩어져 있던 신장의 도시들에서 반란이 한번 일어날때 마다 파견 군인의 숫자를 늘려야 하다보니³⁹ 1853년에 이르러서는 약 5만의 군대를 신장에 주둔을 시키게 된다. 결과 청 정부가 신장 지배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은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되었다.⁴⁰ 이러한 청 정부의 경제적 부담은 중앙정부가 감당하기엔 너무 커서 결국 신장 토착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과중한 세금은 자연히 신장 무슬림들의 불만을 키우게 되었다. 한편 1840년 중국의 반대쪽인 동남 해안가에서 아편 전쟁(1840-1843, 1856-1860)이 발발 하면서 청 정부는 막대한 군비와 배상금으로 한번 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결과 신장성 지방 정부는 그동안 섬서, 감숙과 중국 동남쪽에서 오던 지원 역시 여의치 않아졌고 대량의 군비 부담은 자체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다. 1860년대에 촉발한 위그루 족의 반청봉기(反淸蜂起)는 바로 위그루인들 사이에 100여년동안 형성된 백(beg)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청 정부와 백 들에 2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제도는 물론 서북부 전체적인 민족간 역학관계 그리고 태평 천국의 난 과 같은 중국 내부의 전체적인 혼란, 나아가서 아편 전쟁과 같은 다양한 중국의 대외정세들이 합하여져서 위그루인들의 불만과 불안을 폭발 시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적체된 불만과 불안함을 갖고 있던 위그루족 들에게 감숙과 섬서성의 회족들이 청나라 군대에게 학살을 당한다는 소문은 신장 전체의 무슬림 학살을 연상하도록 만들었고 나아가서 신장의 청군의 강압적인 자세는 바로 이들 위그루인들을 봉기하도록 만든 방아쇠가 되었던 것이다.

신장에서의 위그루 반청봉기(反淸蜂起)는 먼저 쿠차에서 시작 하였고 점차 우룸치, 야르칸드, 카쉬가르, 호탄, 일리등으로 봉기가 확산이 되었다. 반청봉기(反淸蜂起) 에서 성공한 위그루 인들은 처음에는 각기 자신의 독자적인 정부를 세워 운영을 했다.⁴¹ 그 후 서 투르키스탄의 코칸드 칸국에서 넘어온 야쿱 백이 여러 독립 정부들을 모두 통합하여서 결국 일리 계곡을 제외한 신장 전역을 지배하는 통일 무슬림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⁴² 야쿱 백은 처음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신장으로 들어 온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약의 발판을 다지게 되었고 그 뒤 코칸드에서 다시 7000여명의 군사집단이 망명해와 야쿱 백을 따르게 되었고 이들은 향후 야쿱 백이 신장의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병합 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결과 이 야쿱 백은 타림 분지 남부 전역과 우룸치 지역까지 병합하여 명실공히 위그루 투르크인들로 이루어진 국가의 기틀을 다질 수 가 있었다.⁴³ 야쿱 백은 그 후 약 10년간 신장 전역을 통치하였다. 신장의 이 새로운 통일 국가는 나름 대로 중앙 통치조직, 군대, 조세제도를 갖고 있었다.⁴⁴ 그리고 이 야쿱 백 정권은 약 4만명에 이르는 군대를 유지 할 수 가 있었다. 국제관계 역시 소홀 하지 않아 야쿱 백은 남하 하려는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영국, 그리고 민족과 종교를 발판으로 오스만 제국을 우방으로 만들 만큼 왕성한 외교 관계들을 유지하였다.⁴⁵

이렇게 1864년에 회와 투르크계열 연합군이 신장 전체의 청 지방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대가 패배하자 청 정부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1867년 좌종당(左宗棠, ZuoZongTang) 을 필두로 하는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먼저 감숙, 섬서, 영하등 중국의 중앙부위에서 일어난 회족들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당시 회족 군대는 马化龙(MaHuaLong)과 马点熬(MaDianAo) 이 이끌고 있었는데 이들이 위낙 신장과

38 林恩顯, 清朝在新疆的漢回隔離政策 (臺北: 商務印書館, 1988), 129-31.

39 撰, 聖武記, 上卷:195.

40 撰, 上卷:487.

41 楊毓秀, 平回志, vol. 7 (劍南王氏本, 1889), 3-4.

42 Thomas Douglas Forsyth, "Report of a Mission to Yarkund in 1873" (Calcutta: Foreign Department Press, 1875),

80.

43 魏廣燾, "戡定新疆記," 14.

44 Forsyth, "Report of a Mission to Yarkund in 1873," 103.

45 G. J. Alder, "British India's Northern Frontier 1865-95: A Study in Imperial Policy" (London, 1863).

민족정신은 물론 마을 사람들로 연결되는 단단한 연결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보니 좌종당의 군대는 이들을 진압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결과 그들은 7-8년이 지난 1873년에 이르러서야 회족 무슬림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이어서 서북쪽의 신강성의 야콥 백 군대에 대한 진격을 시작 하였다.

결국, 야콥 백 통일 정권은 설립한지 약 10년도 되지 않은채감숙, 섬서성에서 회족 무슬림 군대를 진압하고 감숙의 란주(Lanzhou)시를 출발해 진격해오던 좌종당의 청군을 만닥뜨려야 했다. 위그루 연합군과 청군은 1876년부터 시작 하여 혈전을 벌였으나 청군은 위그루 군대가 지키던 고성, 우룸치, 다반친, 투르판을 잇따라 탈환을 했다. 이러한 연패의 결과로 야콥백은 전쟁 지휘도중 충격과 분노로 1877년 5월 급사를 하게 된다. 지휘관을 잃은 위그루 군대는 앞친데 덮친 격으로 내분에 휩싸이게 된다. 야콥 백의 후계자리를 놓고 장자 백 쿨리와 둘째 아들 학 쿨리사이에 계승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위그루족의 내분으로 확대되어 위그루군대의 와해는 점점 더 속도를 가하게 되었다. 결과 남은 도시인 쿠차, 악수, 카쉬가르, 양기히사르, 야르칸드가 청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1878년 1월 호탄이 함락되면서 청의 신강 원정은 완성을 거두게 된다. 이로서 약 10년동안 번성 할 수 있었던 위그루 최후의 통일 국가는 막을 내리게 된다.⁴⁶

19세기 중 후반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나열 하는데에는 이 야콥 백 통일 정권이 현 위그루인들의 민족 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그 전의 수천년동안 위그루인들은 중국의 서쪽에서 시작 하여 터키의 동부까지 스펙트럼 처럼 이어지는 다양한 민족들과 섞여 살아왔고 더구나 위그루인들 자신도 여러 씨족과 도시 국가로 나뉘었기 때문에 19세기의 동 투르크스탄과 같은 하나의 개념과 의식을 만들지는 못했었기 때문이다. 야콥 백의 등장은 이렇게 넓게 흩어지고 자연적인 유대감과 문화적 요소만 갖추었던 위그루인들을 하나의 국가와 정신아래 뭉칠 수 가 있는 연합체라는 개념을 만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중국 본토의 정부라는 구체적인 공동의 항거대상을 만들어준 사건이라 할 수 가 있다. 이 최후의 위그루 국가는 내부의 제도, 문화적인 융합, 공동의 적, 민족적인 연합, 외교관계를 설정 할 만큼 갖춰진 국가의 위상을 갖추고 있어 위그루인 씨족과 도시국가들이 서로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역사라 하겠다.

V. 현대 위그루인의 이중 문화 체계와 소셜 네트워크

모든 전통 사회는 각기 다른 유형으로 다양한 하위구조(sub-systems)를 발전 시켜왔다. 전통 사회 역시 그 사회가 유목문화의 배경을 갖는지, 부족사회의 배경을 갖는지, 아니면 농경문화의 배경을 갖는지에 따라 그 사회구조와 신분 계층이 크게 달라진다. 이들 각각의 문화권들은 자신들이 갖고있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문화적 상징과 표기들을 개발 하고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절기, 예술과 법, 전통과 사회제도등을 발전 시킨다. 이렇게 모든 전통 사회는 독특한 사회구조를 발전 시켜왔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때와 달리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하위문화(subcultures)들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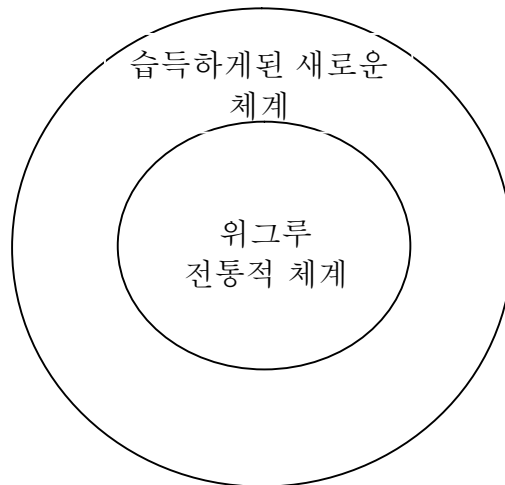
같은 민족이라 할 지라도 그 내부가 균질 (homogeneous)한 민족은 없다. 민족의 구체적인 집단내부를 들여다 보면 훨씬 복잡한 모습들을 볼 수 가 있다.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내부가 모두 같지 않고 그 안에 학력, 출신 지역, 신분, 경제 계급, 직종등 다양한 하위문화 그룹(subcultural groups)들로 나뉜다. 이들 하위 문화 그룹들은 서로 상대방의 그룹을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지를 않는다. 그러데 이들 전통사회의 민족들이 도시생활에 노출이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구조는 물론 하위문화그룹들과 그안의 개인들이 갖는 소셜 네트워크에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도시화는 그 안에 사는 전통민족들의 문화와 생활은 물론 사회적 구조와 역학관계, 정보망과 소셜 네트워크들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또한 도시사회는 기존의 신분제도와 종교적 영향을 도전 할 수 있는 다양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에 직면한 전통적 민족은 그 내부가 이전에 비하여 훨씬더 다양한 그룹으로 나뉘지고 이합집산을 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대학을 가고 고위 관료나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전통적 신분으로 유지되던 사회 역학관계에 커다란 구조적 전이(transformation)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중국의 소수민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위그루족을 비롯한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강력한 정부 주도의 동화과정(assimilation)앞에 노출이 되어있다. 거둬지는 동화과정은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만이 아닌 새로이 흡수한

46 楊毓秀, 平回志, 7:19-22.

문화적 조류역시 그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본래 갖고 있던 정체성만으로는 그들의 현재 모습을 그려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도시속의 위그루인들은 다른 중국의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속에 적어도 두가지 문화적 결(Cultural layers)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 하나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도시에서의 문화와 체계이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민족적 얼과 문화적 체계 그리고 가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그루인들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개의 문화적 층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도시인들의 문화적 패턴 두개의 층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2009년 위그루족과 흡사한 회족의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유추 할 수가 있다.⁴⁷ 회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에서는 중국의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무슬림들의 선호도,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결과 도시의 영향을 오래 받는 무슬림들은 점점 더 무슬림 전통 사회의 가치 보다 도시 공통의 가치관을 흡수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들 중국 무슬림들은 자신들만의 가치관을 드러내야 하는 환경이 조성 되면 다시 강력하게 원래의 가치와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을 발견 하였다. 이는 중국 도시의 무슬림들이 적어도 두 종류의 문화적 패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이다. 그림 1 은 이러한 현대 중국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최소 두층의 문화적 체계를 개념화 한 도표이다. 안쪽의 원은 본래 갖고 있던 무슬림의 전통, 그룹 또는 개인의 문화적 요소로 만들어졌고, 바깥원은 주로 현대 중국 도시에 살면서 형성된 문화적 요소이다.



<그림 1>
이중적 문화 체계
<출처: 김 2013: 97>⁴⁸

⁴⁷ 김에녹은 중국 서안시에서 232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행했다. Enoch J. Kim, “A New Entrance Gate in Urban Minorities: Chinese Muslim Minority, the Hui People Case,”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9, no. 3 (2011): 363–65.

⁴⁸ 김에녹이 소개한 도표를 위그루족 상황에 맞게 바꾸었다. Enoch Jinsik Kim, “‘Us’ or ‘Me’? Modernization and Social Networks among China’s Urban Hui,” in *Longing for Community: Church, Ummah, or Somewhere In Between?*, ed. David Greenle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3), 97.

그림은 한명의 위그루인들을 표현한 것인데 외부층은 위그루인들을 중국 사회라는 환경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능력을 말 한다. 외부층으로 말미암아 위그루인들은 도시사회가 갖고 있는 공통의 코드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 하고 또 도시다운 것들을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이 외부층으로 인해 위그루인들은 도시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나눌 수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적 외층으로 인해 위그루인들은 비록 상대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일 지라도 서로 비슷한 추억과 취미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할 수 가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문화적 외층은 위그루인들을 중국 사회에서 외부 문화권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가 있다.

문화적 2중 구조의 안쪽 층은 위그루 개인의 전통적인 문화체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셔츠와 외투를 입고 무릎까지 오는 차관(단추 없는 긴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는 남성, 그리고 원피스와 조끼를 입고 비단 아틀라스 를 입는 여성등 전통복장은 그 대표적인 문화체계이다. 이러한 전통적 체계는 적어도 네가지 응집하는 요소(cohesion factors)들이 있어야 유지발전이 가능해 진다. 그 네가지란 사회적 연계(social tie), 전통적인 정체성(old identity), 그리고 민족의 풍습과 가치(ethnic customs and value)이다.⁴⁹

사회적 연계(social tie) 란 혈연, 식구, 친족, 직장, 학교, 동향같이 위그루인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형성하는 인간관계를 말 한다. 이중 혈연은 그 어떤 것 보다 민족에게 가장 뿌리 깊은 유대감을 제공한다. 가족의 개념 역시 위그루인의 전통성을 묶어주는 사회적 연계이다. 위그루인에게 가정이란 부자와, 조손을 기초로하는 삼대를 일컫는데 다자녀 가정에서는 둘째 아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모시게 되어 있으며 장례도 치르게 되어 있다. 부친과 남편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 특히 여성들은 가장이나 남성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결혼 제도 역시 전통과 이슬람의 영향으로 조혼, 매매혼, 일부다처제도가 있어왔었으나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따른 이후로는 이러한 전통을 봉건적 잔재로 치부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위그루인들에게 있어 가족과 친족은 개인이 선택 할 수 없는 선천적 요소이자 강력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된다. 또한 문화 정치적 이유와 민족 전체의 집단적인 인식으로 결혼상대에 대한 선호감은 절대다수의 위그루인에게 같은민족끼리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이어나가도록 만든다. 물론 중국의 특수 상황으로 민족의 자유로운 결사나 활동이 상상할수 없이 제한이 된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그루인들이 주도가 되는 사회활동과 조직은 같은 민족간에 이익과 정서적 만족,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가능케 해 주고 결과 민족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⁵⁰

위그루 민족의 테두리를 유지하고 내부의 원을 강화시키는 두번째 힘으로 전통적 정체성(old identity)가 있다. 이 전통적 정체성은 우리와 그들(we and others)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민족간의 감정과 타민족에 대한 인식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식은 위그루족 전체가 다른 민족에 대하여 비슷한 태도를 갖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전통적 정체성은 유구한 위그루 민족의 역사속에서 형성이 되어 왔고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적 관점이 집적되어 자신을 어떻게 보고 타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준가리아의 속령으로 지내오면서 이리계곡으로 이주를 당했던 위그루인들은 1757년 그들을 지배자인 준가리아가 청나라 원정군에 멸망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그 후 준가리아를 점령한 청 정부에 의해 다시 천산 북부, 타림분지, 투르판, 우루무치로 흩어지는데 역사를 모두 함께 경험해야 했다. 그 후 봉기한 회 투르크 반란으로 청정부를 몰아내고 야쿱 백을 중심으로 다시 번듯한 국가도 세워보고, 그러나 10년도 가지 못해 다시 청 정부에 무참히 무너진후 오늘까지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이 한 어린 역사를 오늘날의 모든 위그루인들의 그 가슴에 깊이 담아두고 있다. 이런 최근 수백년 사이에 경험한 타민족이나 중국 중앙정부와의 관계속에서 형성된 외부에 대한 인식과 감정은 현대 위그루인들에게 강력한 우리와 그들이라는 양극화된 사고, 집단 보호주의, 자민족 중심적 사고등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했다. 이런 정체성은 위그루인 집단의 이익과도 직결이 된다. 자기의 민족이 불이익과 천대를 받는 모습을 보면 길거리의 누구라도 자신의 동족을 옹호하고 외부인을 향한 적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다. 이러한 감정은 소수민족이 도시로 오면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민족들이 서로간에 편견과 우월감은 갖고 있을

⁴⁹ Claude S. Fischer, *The Urban Experience*, 2nd ed.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4), 146-52.

⁵⁰ A. Leerkes, G. Engbersen, and M. Van San, "Shadow Places: Patterns of Spatial Concentration and Incorporation of Irregular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URBAN STUDIES* 44, no. 8 (2007): 1491-1516.

지연정 거리가 멀고 교류할 일이 적어 실제 부딪히는 일은 많지 않다. 반면, 도시는 매사에 직접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민족간 실제적인 이익과 감정의 싸움이 지속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¹

세째로 위그루 민족의 전통과 가치가 내부의 원을 강화 시켜준다. 사람들이 갖고있는 전통적 가치 체계와 문화적 습관은 어려서부터 조상들에게 특별한 의문 없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어 있다.⁵² 특히 언어와 음식은 어려서 습득되는 것이므로 한번 고정되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못한다. 이런 매일 경험하는 음식과 언어뿐 아니라, 사람의 일생과 생로병사에 관계된 행사, 표기, 상징등은 그들의 가치 체계와 문화적 습관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상이라 하겠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그 전에 어디에서 왔고,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태어나기전과 후 부모와 가족이 해야 하는 행위와 금기사항,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성장하면서 치르는 행사들이 갖는 의미, 성년이 될때 와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해야 하는 형식, 결혼의 의미, 결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팠을때, 좋은일이 있을때 위그루족이 해야 하고 하지말아야 하는 것들은 모두 그들의 내부의 원이 말 하는 가치 체계를 소개해주는 것이다.

종교는 이들 생사고락의 행사에 매우 깊이 관계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위그루의 장례식은 토장과 속장을 주로하는데 영구를 묘지에 보낼때 여성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3,7,24,40일이 될때 아홉을 청하여 코란 경을 읽고 양고기를 섞은 밥으로 참석자들을 대접한다. 그리고 명절에는 묘지나 집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경을 읽고 기린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습관도 위그루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코르반 지에(Kurbanjie)같은 종교적 행사에 모든 마을사람이 참여하고 양과 소를 잡아 잔치를 온동네가 떠들썩하도록 벌린다. 평소에도 친구와 친척을 만나면 악수를 한 후 가슴이나 수염에 손을 대야한다. 여성은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몸을 굽혀 뒤로 물러서면서 인사를 표해야 한다.

위그루인들은 생활속에 수많은 금기사항들을 발전 시켜왔다. 대표적으로 되지고기나 동물의 피를 먹지 않고, 식전에는 손을 씻되 물은 털지말고 수건에 닦아야 한다. 낭(뽕)을 먹을때도 조각으로 뜯어서 먹어야하고 낭 전체를 입으로 뜯어먹지 말아야한다. 실외활동에서 남녀 모두 머리를 가려야 하고 집의 문은 서쪽을 향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위그루 족은 같은 관습과 가치를 가진 같은 민족끼리 모여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⁵³

이같은 네가지 요소 외에도 민족의 규모(size)역시 도시에서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요소이다. 여기에서의 힘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세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능력, 사회적 영향력과 기여도, 유행과 가치의 주도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정 민족의 규모가 크거나 또 그 영향력이 클 때 민족은 자체 힘만으로도 충분히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시킬 수가 있다. 반대로 그 규모가 너무 적거나 숫자는 많으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경우 소수민족은 주류사회의 영향과 지배아래에 놓이게 된다. 중국과 같이 한족이 절대적인 숫자를 점유하고 또 정부가 현대화(modernization)라는 이름으로 모든 다양한 민족을 국가적인 멜팅팟(melting pot)으로 융화시키는 상황에서는 위그루인의 정체성이 예술공연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위그루인들은 적어도 네가지의 응집 요소들과 규모를통해 자신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위그루인들은 거의 모두가 앞에서 말한 2중 문화적 체계속에서 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보통 도시에 올라온지 얼마 되지 않은 위그루인들이나 도시에서도 위그루인들의 사회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외부의 원이 많이 자라지 않고 주로 내부의 원을 유지하며 도시의 생활을 한다. 반면 이미 조상 적 부터 도시에서 살아왔거나 본인의 원 문화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위그루 인들이라면 당연히 내부의 원이 작고 주로 바깥 원으로 문화적 세팅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내부의 문화적 요소는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지만 위그루족 처럼 예민한 사회 정치적 환경에 노출된 민족은 비록 그 개인의 내부요소가 작다 할지라도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내부요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작게는 운동경기 도중 위그루팀을 응원하다가 민족 정신이 분출 되기도 하고 또 크게는 위그루족이 종교나 정치적으로 불리한 대접을 받게 되면서 숨어있던 내부요소가

51 Fischer, *The Urban Experience*, 151-52.

52 Fischer, 147.

53 Fischer, 146-52.

엄청난 민족적인 봉기나 저항으로 이어 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가 바로 내부의 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그루인들 속에 존재하는 이 두가지 체계는 개인, 가정, 집안, 지역, 주변사회, 미디어, 정치경제 상황등에 따라 여러사람들이 모두 다른 비율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그 개인과 자신이 속한 집단이 속한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원의 크기는 변하게 되어 있다.

이중 문화 체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역시 많은 변화를 갖게 마련이다. 동질사회(homogeneous society)에서는 두가지 원이던 한가지 원이던 전체 구성원이 비교적 유사한 모양을 갖겠지만 현대사회 특히 중국안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위그루족과 같은 경우는 각자의 이중구조의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결코 동질 사회라고만 볼수는 없다. 오히려 같은민족이면서 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회에 따라 대단히 동질 사회와 다변화된 단위(heterogeneous unit)사이를 오가는 민족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따라 위그루인들도 처음에는 소수 민족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중 고등 교육에 들어서 부터는 거의 한족들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한족민들과 한 교실안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소수민족이지만 한족언어로 대학시험을 보게되는 사람들을 민카오한(民考汉, minkaohan)이라 부르는데, 이들 민카오한들은 어려서는 가정과 마을에서 소수민족의 문화를 흡수하며 자라지만 학령 연령에 들어서는 한족의 교육과 세계관을 받으며 자라게 되어 있다. 자연히 이런 민카오한들에게는 청소년 부터 같은 교실에서 한족들과 함께 지내고 또 사회진출도 용이하여서 사회생활 내내 한족들과 가까이서 살아가게 된다. 자연히 그들의 소셜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위그루인들과 달라지게 된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을 편의하게 1차와 2차 네트워크로 나눠서 정리를 한다.⁵⁴ 1차 네트워크란 식구, 친척과 같이 태어나면서 부터 맺어진 관계를 말 하고 대부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주어진(ascribed) 관계를 말 한다. 반면 2차 네트워크란 이웃과 친구, 사업파트너나 길가에서 그저 알게된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관계를 말 한다. 위그루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2차 네트워크안에는 같은 민족도 있지만 한족이나 기타 다른 민족 심지어는 외국인과의 관계도 이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특히 사회생활을 자기 민족안에서만 하지 않고 보다 도시의 다양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거나, 한족 문화를 상당히 흡수하거나, 아니면 신장성 밖의 상해나 북경과 같은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위그루족같은 경우는 매우 폭넓은 이차 네트워크를 갖는 위그루인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카오한(民考汉)이나 또는 이중 체계에서 바깥원이 넓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2차 네트워크의 비중이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하며 길이도 매우 길어진다. 소셜 네트워크의 길이가 길다는 뜻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의 관계가 멀리까지 확장이 된다는 뜻이다. 이들은 학교안에서는 물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타민족들과 접촉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발전된 교통수단은 이들을 쉽게 다른 지역과도 거리를 좁혀주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준다. 또한 이들 도시의 위그루인들이 사용하는 현대 미디어는 비록 통제는 된것이지만 자기 민족에 관한 소식뿐아니라 중국 전체의 뉴스는 물론 해외의 소식도 상당부분 흡수를 하도록 해준다. 특히 정치사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물질과유행 경제와 기술, 오락과 문화생활적인은 이들 소수민족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접하도록 해준다. 특히 오락과 문화생활에 관한부분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엄청난 힘으로 위그루인들의 가정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중국은 물론 홍콩과 한류,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드라마, 영화, 오락물은 이제 위그루인들에게 더이상 낯선 내용이 아니다. 중국은 2018년 초 현재 7억8천만이 넘는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명실공히 세계 1위의 인터넷 인구를 갖고 있다. 이중에서도 약 98%가 mobile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가에 비하여서도 중국은 월등히 그 기동성이 빠른 국가라 하겠다.⁵⁵ 보통 정보의 통로(channel)이 확보가 되면 그 통로로 들어오는 정보는 단순히 정보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이런 정보로 인해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생활의 스타일과 개인들의 선호(preference)감도

⁵⁴ Claude S. Fischer, *To Dwell among Friends : Personal Networks in Town and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3, 38, 114; Edwin Eames and Judith Goode, *Anthropology of the City: An Introduction to Urban Anthropology*, Prentice-Hall Series in Anthrop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7).

⁵⁵ The 41th Statistical Report on Internet Development in China (Jan 2018),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https://cnnic.com.cn/IDR/ReportDownloads/201807/P020180711391069195909.pdf>.

바뀌주어 결국은 삶의 추구하고 방향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이러한 넓어진 정보망과 교통수단을 통한 기동성(mobility)은 위그루인들의 2차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2차네트워크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공감대를 확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
중국 소수민족의 소셜네트워크와 민족의 경계선간의 관계
<출처:김 2018: 48, 49>⁵⁶

그림 2는 위그루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추정 할 수 있는 개념도이다. 왼쪽은 전통사회에서의 위그루인으로서 1차 네트 밖의 모든 2차 네트워크관계가 그 개인의 민족 경계선 안에 위치한다. 즉 이 사람의 모든 사회관계는 같은 위그루민족들과만 연결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외부의 정보와는 차단이 되고 주로 내부에 있던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갖고 살아간다. 반대로 오른쪽의 개념도는 현대 위그루인을 설명하는 그림으로서 그의 2차 네트워크는 일부는 민족 안에 또 다른 일부는 민족 밖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2차네트워크는 다른 민족과도 연결이 되어있고 미디어와 현대 기기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위그루족 역시 다른 중국의 소수민족들처럼 이중 문화적 체계의 외각부분이 늘어나는 중에 있고 이렇게 늘어난 외각 부분은 보다 다양한 2차 네트워크를 갖도록 만들어 준다.

VI. 위구르인을 위한 선교적 노력

지금까지 위그루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상황화 과정 이론에 기반 하여 그들의 근대 역사가 형성해준 문화적 주제와 의미, 이중 문화적 체계가 만들어준 문화적 주제와 의미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소셜네트워크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위그루인들 개인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주제는 수천년 그들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종교와 그들 조상 부터의 경험들이 축적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전통적 주제는 위그루인 전체가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라는 환경속에서 유목 민족배경을 가진 정착 농경민족이라는 전제를 갖고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위그루 인들은 과거 샤머니즘과 불교라는 기저층위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민족이라는 관점을 갖고 그들의 종교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터키와 다양한 중앙아시아의 도시국가와 민족들과의 정치경제 환경속에서 그들의 민족 정서를 빚어 내어 왔다는 사실역시 역시 이들의 위그루인들의 문화적 주제를 찾아내는데에 잊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다. 특히

⁵⁶ 김에녹의 개념도를 위그루상황에 맞게 변경하다. Enoch Jinsik Kim, *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 for Hui Muslims in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Church Planting*, vol. 34,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Monograph Series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 2018), 48, 49.

1757년 청조에 의한 준가리아가 복속 된 후 거의 민족 부흥의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위그루인들이 나중 모처럼 갖게 된 회 투르쿠 연합의 반청봉기의 성공과 그후 10여년간 야쿵 백 에 의해 통치된 위그루인들의 마지막 국가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근대 문화적 주제를 형성해주었고 그들이 하나의 위그루인들의 국가였다는 개념을 만들어준 기간이었다. 이뿐 아니라 현대중국정부 설립 이후 위그루인들이 겪은 민족적 수난과 자괴감, 그리고 문화혁명과 개혁개방을 겪으며 현대 도시의 위그루인들이 갖게 되는 이중 문화적 체계는 그들에게 또다른 차원의 문화적 주제를 형성해 주었다. 이처럼 위그루인들이 갖고있는 문화적 주제는 갑자기 최근 몇십년 사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자연환경, 대내외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의해 축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문화적 주제를 찾는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상황화과정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앞 부분에서 언급 하였듯이 위그루 선교역사에 나타난 귀한 선교사들의 노력과 현지인의 희생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유지해야 할 유산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 위그루 선교는 위그루인들의 문화적 주제에 기반한 상황화적 선교를 늦춰서는 않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교사 개인들이 세심하게 현지인들의 문화를 대하고 관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방대한 역사학자와 인류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유산들을 소홀히 하여서는 않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상황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선교사나 외부인 보다는 현지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위그루 그리스도인들이라 하겠다. 이는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진정한 현지인들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토착교회(indigenous church)에 대한 노력 이외에도 한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즉 세가지 자력(three self)의 노력 인 자치, 자립, 자전 (self-governance, self-support, self-propagation)의 원칙 외에도 자 신화화(self-theologizing) 라는 작업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상황화작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거의 외부인으로는 어렵고 현지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되어질 수 있다 했다.⁵⁷

그러나 위그루인들을 향한 선교의 노력은 아직까지 계속 기초다지기(ground breaking)가 많이 필요한 단계이고 선교사들이 장기적 거주하는데에도 엄청난 정치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현지인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내부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전략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적인 상황에서 위그루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중 문화체계의 위그루인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원을 두텁게 갖고 있고 멀리 까지 뻗어나간 2차 소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위그루인들을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외부의 원만 두터워서는 않된다. 위그루인들 사이에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정보에도 개방적이지만 내부의 민족에게도 영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사람들은 외부 정보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부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외부에서 온 선교사 또는 한족 그리스도인들이 전해 주는 소식에도 민족적 편견이나 감정적으로 대하기 보다 어느정도 객관적인 대화가 가능 하다. 나아가서 그들의 리더십으로 인해 받아들인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 을 자신의 민족들에게 확산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⁵⁸ 위그루 인과 흡사한 조건을 갖춘 또다른 중국의 소수민족인 회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방성과 리더십을 갖춘 부류로서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에 살아가는 (Young, Educated, and Urban) 그룹에 집중 할 것을 강조한다.⁵⁹ 이런 그룹은 한국의 선교사와도 상당히 잘 융합이 될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한국의 위상과, 한국 선교사 특유의 개인 친화력, 유능한 언어실력으로 인해 이들 젊은 그룹과는 좋은 공감대를 형성 할 수 가 있다. 동시에 선교사들은 이들의 내부 원이 갖고 있는 민족 전통의 정서와 감정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문화적 습관을 존중하고 가장 문화에 맞는 교회의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역사 이래로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일제 36년간 어려움을 겪어 온 한국의 역사는 이들 위그루인들과 많은 정서적 공감대를 찾아 낼 수 가 있다. 이뿐 아니라 가난 한 가운데에서도, 전쟁중에도 신앙을 우선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낸 초기 한국 교회의 전통 역시 위그루인들의 지금 현실에 나누어야 할 소중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유산이다. 더군다나 오랜 가족관계와 혈연으로 다져진 가족 문화와 동네 문화, 어른을 존중하고 윗사람에게 충성하며 아랫사람을 책임져 주려는 의의를 아는 문화는 어떤 서구의 선교사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한국 선교사의 유산이라

⁵⁷ Paul G. Hiebert and Eloise Hiebert Meneses, *Incarnational Ministry: Planting Churches in Band, Tribal, Peasant, and Urban Societies* (Grand Rapids, Mich.: Baker Books, 1995), 164.

⁵⁸ Everett M.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Free Press, 2003).

⁵⁹ Kim, *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 for Hui Muslims in China*, 34:211-13.

하겠다. 그러므로 위그루인들의 전통적 문화와 한국 선교사간의 공감대, 그리고 변화하는 위그루인들의 2차 네트워크는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위그루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교의 선물이라 하겠다.

VII. 인용문헌 목록

단행본

- Alder, G. J. "British India's Northern Frontier 1865-95: A Study in Imperial Policy." London, 1863.
- Barth, Fredrik, and Universitetet i Bergen.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Scandinavian University Books. Bergen, London: Universitetsforlaget; Allen & Unwin, 1969.
- Beavans, Stephen B.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 Marknoll, New York: Orbis Book, 2000.
- Clauson, G. "Beg." In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Univ. Press, 1972.
- Cloer, Clayton Parnell. "Samuel Zwemer : A Model of Muslim Contextualization." Ph. D.,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0.
- Eames, Edwin, and Judith Goode. *Anthropology of the City : An Introduction to Urban Anthropology*. Prentice-Hall Series in Anthrop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7.
- Engel, James F. *Contemporary Christian Communication*. Nashville, Newyork: ThomanNelson Publishers, 1979.
- Fischer, Claude S. *The Urban Experience*. 2nd ed.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4.
- . *To Dwell among Friends : Personal Networks in Town and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Forsyth, Thomas Douglas. "Report of a Mission to Yarkund in 1873." Calcutta: Foreign Department Press, 1875.
- Gilliland, Dean S. *The World Among Us: Contextualizing Theology for Mission Today*. Dallas, TX: Word Publishing, 1989.
- Glazer, Nathan, Daniel P. Moynihan, and Corinne Saposs Schelling. *Ethnicity : Theory and Experien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 Hesselgrave, David J.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 An Introduction to Missionary Communication*.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78.
- Hiebert, Paul G., and Eloise Hiebert Meneses. *Incarnational Ministry : Planting Churches in Band, Tribal, Peasant, and Urban Societies*. Grand Rapids, Mich.: Baker Books, 1995.
- Hiebert, Paul G., R. Daniel Shaw, and Tite Tiénou. *Understanding Folk Religion : A Christian Response to Popular Beliefs and Practices*. Grand Rapids, Mich.: Baker Books, 1999.
- Kim, Enoch Jinsik. *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 for Hui Muslims in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Church Planting*. Vol. 34.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Monograph Series.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 2018.
- . "'Us' or 'Me'? Modernization and Social Networks among China's Urban Hui." In *Longing for Community: Church, Ummah, or Somewhere In Between?*, edited by David Greenlee, 93–103.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3.
- Reminick, Ronald A. *Theory of Ethnicity : An Anthropologist's Perspective*.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 Rogers, Everett M.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Free Press, 2003.
- Romanucci-Ross, Lola, and George A. De Vos. *Ethnic Identity : Creation, Conflict, and Accommodation*. 3rd ed.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1995.
- Schermerhorn, R. A. *Comparative Ethnic Relations; a Framework for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Random House, 1970.
- Schuyler, E. *Turkistan: Notes of a Journey in Russian Turkistan, Khokand, Bukhara and Kuldja*. Vol. 2. London: Sampson Low, 1877.

- Smith, Donald K. *Creating Understanding : A Handbook for Christian Communication across Cultural Landscape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2.
- Søgaard, Viggo B. *Media in Church and Mission : Communicating the Gospel*.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3.
- Weber, Max. "The Ethnicity Group." In *Theories of Society: Foundations of Modern Sociological Theory*, edited by Talcott Parsons, Edward Shils, Kaspar D. Naeyege, and Jesse R. Pitts, Vol. 1. Glencoe, IL: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1.
- Yang, Philip Q. *Ethnic Studies : Issues and Approach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 Dayton E. R., Fraiser D. A.,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zation*, 곽 선희, 이요한 역, 세계선교의 이론과 전략.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80.
- 배규한, 이태림, 이기재. *조사방법론과 사회통계*. 서울: 도서출판 한나래, 1991.
-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8 가지*. 서울: CLC, 2011.
- 중국 신장 도시연구 동우회. *우루무치: 신 실크로드의 심장*. 서울: 중국 신장 도시연구 동우회, 2008.
- Paul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 for Missionaries*,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홍호 역,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조이 선교회 출판부, 1996.
- 吳萬善. *清代西北回民起義研究*. 蘭州大學出版社, 1991.
- 林恩顯. *清朝在新疆的漢回隔離政策*. 臺北: 商務印書館, 1988.
- 苗普生. *新疆歷史常識*. 烏魯木齊: 新疆人民, 1993.
- 魏廣燾. "戡定新疆記." *新疆研究叢書*, 袁同禮, 第十種. 臺北, 1966.

논문, 논문집

- Dyer, S. R. "Soviet Dungan Nationalism: A Few Comments on Their Origin and Language." *Monumenta Serica* 33 (78 1977): 349–62.
- Hiebert, Paul G. "Critical Contextualiz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987, 11(2): 104~112.
- .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Communication of the Gospel."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A Reader*, edit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373–83. Pasadena, Calif.: William Carey Library, 1999.
- Kim, Enoch J. "A New Entrance Gate in Urban Minorities: Chinese Muslim Minority, the Hui People Case."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9, no. 3 (2011): 353–71.
- Kraft, Charles H. "The Incarnatio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Theory," 1973, EMQ, FALL: 277~284.
- Leerkes, A., G. Engbersen, and M. Van San. "Shadow Places: Patterns of Spatial Concentration and Incorporation of Irregular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URBAN STUDIES* 44, no. 8 (2007): 1491–1516.
- 撰魏源. *聖武記*. 道光 22. 上卷. 北京: 中華書局本, 1984.
- 楊毓秀. *平回志*. 7 卷. 劍南王氏本, 1889.